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하게 만들어줄  
11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        |  |
|--------|--|
| 학교교육전반 | 학생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하고 행복교육을 책임집니다.             |
|        | 학교책임교육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듭니다.    |
|        | 교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원역량성장제를 도입합니다.        |
|        |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
| 유아초등교육 | 한글 기초 교육과 문해력을 학교가 책임집니다.                |
|        | 아동 놀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
| 중등 교육  |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 성적 차별없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로 행복하게 교육받는 학교를 만듭니다.  |
|        |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        | 상대 평가를 넘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 성장형 평가를 실현합니다.    |
| 사교육    | 사교육을 조장하는 오래된 관습을 근절합니다.                 |

## □ 제1공약: 학생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하고 행복교육을 책임집니다.

### 1. 현 황

-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살자들이 겪었던 고민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학교 성적 문제로 26.8%를 차지함.
- OECD 학생 삶에 대한 만족도 35개국 중 34위,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조사대상 72개국 나라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음.
- OECD 2017년 4월 발표한 학생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 75%가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함.
-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학생은 조사 대상 전체의 30.4%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1위는 학업문제 38.6%,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로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과반이 넘어가고 있음.
-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 중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입시경쟁 등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가 지닐 필요가 있음.

### 2. 대 안

- 교육청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학생 행복 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 및 대안 공표가 필요함.
-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해야 함.
- 교육청은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 등을 반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공개, 목표 미달성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발표할 필요가 있음.

### 3. 기대 효과

- 학생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실태조사와 공표를 통해 재정의함.
- 한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함.
- 학생들의 병리적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본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 제2공약: 한글 기초 교육과 문해력을 학교가 책임집니다.

### 1. 현 황

- 공교육 내에서 한글 책임교육의 명목으로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배 이상 늘리며 충분한 한글 읽기·쓰기 교육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과정 시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교내 다양한 프로젝트, 독서 노트 기록 등의 활동에서 한글을 습득하지 못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한글을 떼고 학교에 가야한다는 인식하에 여러 형태의 사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 수준을 넘어선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처럼 한글 사교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해력 저하에 대한 조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음.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미국이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인 데 반해 한국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하였음.

### 2. 대 안

- 한글 책임 교육 정책과 한글 책임교육이 잘 실현된 학교 사례에 대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문해력 교육 특화 사업을 통해 한글 교육을 넘어 문해력 교육까지 학교 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정책 구현이 필요함.
- 교육과정 내외에서 한글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전제하에 학교 활동을 전개해야 함.
- 한글책임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학교활동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는 사업이 필요함.

### 3. 기대 효과

- 한글 사교육 경감 및 학교책임교육 구현할 수 있음.
- 학력 격차의 주요 원인인 문해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 제3공약: 아동 놀권리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 1. 현 황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황옥경 외) 연구에서도, 놀이와 여가의 장애 요인으로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20.8%, 2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초·중·고는 물론 취학 전인 영유아기까지 사교육은 만연해있어 놀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 부족 문제도 심각, 201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아동의 평일 바깥에서의 놀이 시간은 어린이집 47분, 유치원 46분에 불과함.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시간은 5~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3~5세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이런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 유아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은) 매우 부족함.

### 2. 대 안

- ‘아동 놀권리 보장 학교 만들기’ 정책이 필요하고, 학교 시간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학교 안에서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놀이 체험을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보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처음 초등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구현된 생활에 익숙함에도, 좁은 개인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생활하게 되는 초등학교 일과는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음.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현실이 된 지금 놀이시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누려야 하는 필요가 절대적임.
- 놀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 교육과정 및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바깥 공간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보장하는 정책 및 체계를 담은 놀이권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함.

### 3. 기대 효과

- 아동 놀권리 보장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쉼과 놀이 시간 제공함.
- 친구들과의 소통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발달시킴.
-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함.

## □ 제4공약: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1. 현 황

-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상황임.
- 그러나 모든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해당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선착순 또는 추첨들을 통해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상황임.
-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까지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2. 대 안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방과후 학교 프로젝트’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모두가 해당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함.

### 3. 기대효과

-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교육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공교육만족도를 높임.

## □ 제5공약: 성적차별 없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로 행복하게 교육받는 학교를 만듭니다.

### 1. 현 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줄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한 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 성적 우수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 ▶ 자율학습 강제 참석 △고등학생 토·일요일 등교 ▶ 성적 우수자 특별반 운영 ▶ 인권위에서 금지한 합격 현수막 게재 ▶ 성적순 도서관 자리 지정 표시제 등이 이뤄지고 있었음. 기숙사는 전교 30등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들에겐 학원 강사의 특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숙사에만 에어컨을 돌리는 학교,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 부스’ 자습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음.
-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후한 보상을 주는 차별적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관행임.
-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심각해진 학력 격차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는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서열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여전하여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함.

### 2 대 안

- 교육감의 주도 아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차별 관행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 ‘성적차별 예방교육’ 의무 연수를 마련하여 전체 교사 및 학생들에게 실시해야 함.
- 성적차별 없는 좋은 학교 및 학급의 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보급하여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형성해갈 필요가 있음.

### 3 기대 효과

- 좋은 성적이 배움의 최우선 가치가 아님을 알리고, 다양한 재능과 적성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며,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시스템을 정착시킴.

## □ 제6공약: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1. 현 황

-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가 가장 적은 학교는 대전예술고로 39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학교는 1,187인 경북 과학고였음.
-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의 격차는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수직적 고교서열화로 소수의 특권학교가 형성되고 이들 학교가 교육불평등 대물림의 통로가 되는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9년 11월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4년 뒤에 완결될 일이고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쟁송을 제기해 과연 정책이 잘 추진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음

### 2. 정책대안

-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 완수가 필요함.
- 영재고 과학고 등과 같이 일반고의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도 상향평준화할 필요가 있음.
- 고교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로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함.

### 3. 기대효과

-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임.
- 초·중학생의 고입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함.
-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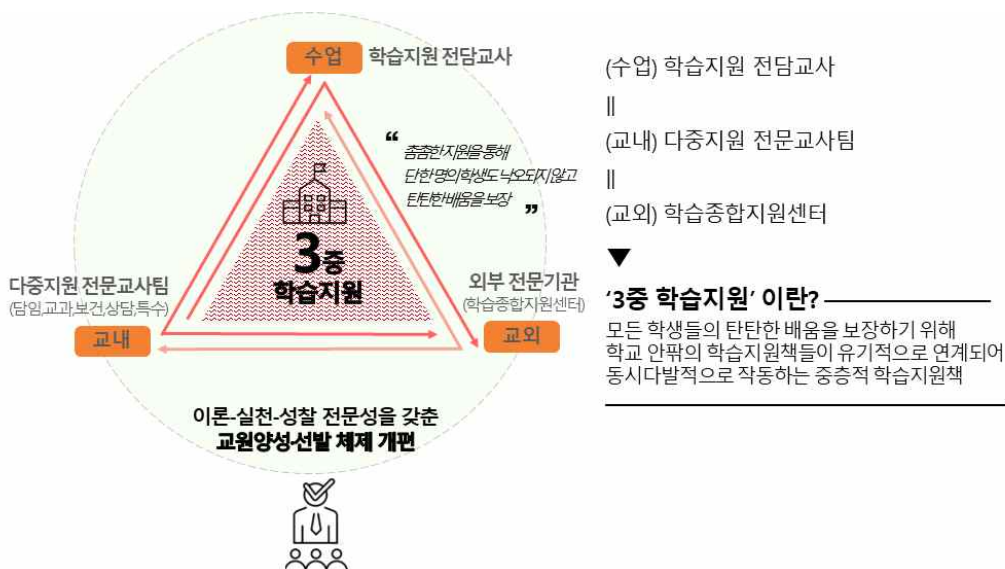
□ 제7공약: 학교책임교육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듭니다.

1. 현 황

- 공교육에서는 학교 안팎을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로 ‘교실 내 정규수업 학습지원’(1단계), 2014년부터 두드림학교로 ‘학교 내 다중지원팀’(2단계) 운영, 2011년부터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을 연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3단계) 등 3단계 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기존의 단계적 접근 방식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맡겨지는 구조라서 학교 내에서의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됨
- 지원인력도 보조교사나 방과후 강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지속적이고 중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기초학력 담당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량 부담과 책임이 쏠려 있음
- 현행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은 동일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게 하여 이에 숙달되면 통과되는 방식임. 진단 이후에도 적합한 처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에는 부족,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이 국어 6.8%, 수학 13.5%, 영어 8.6%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임.
- OECD평균을 상회하는 학급당 학생수는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20 교육기본통계상 학급당 학생 수는 초 21.8명, 중 25.2명, 고 23.4명, 신도시 일부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초과함.

2. 정책대안

[그림] 3중 학습지원 체제



- 학교 안팎의 학습 지원책들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3중 학습지원’이 필



요함.

- 생애 첫 공부 단추를 지원하기 위해 초1, 2 전 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운영을 제안함.
- 자녀의 학습상황을 가정에서 확인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학부모 안심 홈티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3. 기대효과

- 돌봄·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제8공약: 상대 평가를 넘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 성장형 평가를 실현합니다.

1. 현 황

- 한국의 대학생 10명 중 8명(80.8%)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함.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중·고교 모든 교과에 도입되었음에도, 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에 성취도와 석차등급(1~9등급)이 병기됨으로써 석차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됨.
- 성적표 또한 교과별 점수만 기록되어 있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고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 어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했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함.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생의 교과별 학업에 대한 서술 기록이 있지만 교사별·학교별 차이가 존재하며, 학교의 대입 실적을 고려하여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편중해 기록하는 등 여러 비판을 받고 있음.

2. 대 안



- 자기성장 평가는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단계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전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변별과 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함. 또한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선다형 평가가 대부분인 현행 방식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서·논술형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교과별 점수만 기록된 성적표가 아닌,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성적표를 도입하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유익한 평가과정과 결과가 정보로 제공되도록 함.
- 이러한 개선이 쌍방향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정-학교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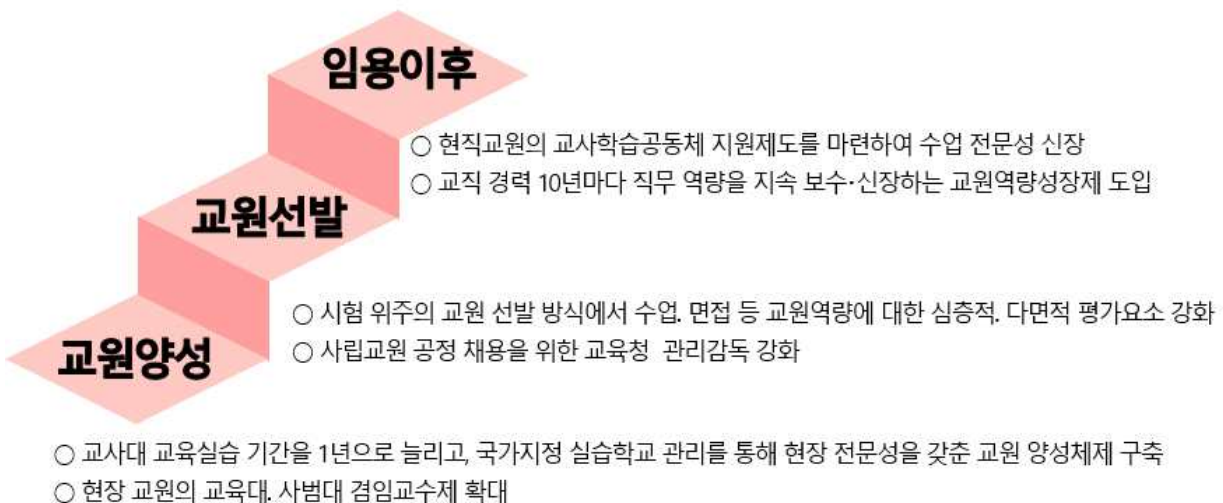
- 학생의 평가 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뿐 아니라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성장을 촉진함.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일체화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돕는 유기적이고 통합적 교육 활동을 구현함.
- 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

## □ 제9공약: 교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원역량성장제를 도입합니다.

### 1. 현 황

- 노량진 학원을 거쳐야 교사가 되는 지필시험 위주의 교원임용 체제로 인해 수업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가 부족함.
-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직 풍토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체 교원의 0.32%에 불과(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연보)하고 현장의 실효성 체감은 미미함.
- 교사 임용 후 정년 시까지 평교사 자격 연수가 단 1회(1급 정교사)에 불과함. 교직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전문성 및 동기 제고책으로서 교원자격 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OECD 평균 대비 한국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활동시간 평균 이상, 업무신념과 자신감 등 자기효능감은 평균 이하, 행정업무 시간은 2배에 달함. (TALIS 2018'설문결과)

### 2. 대 안



###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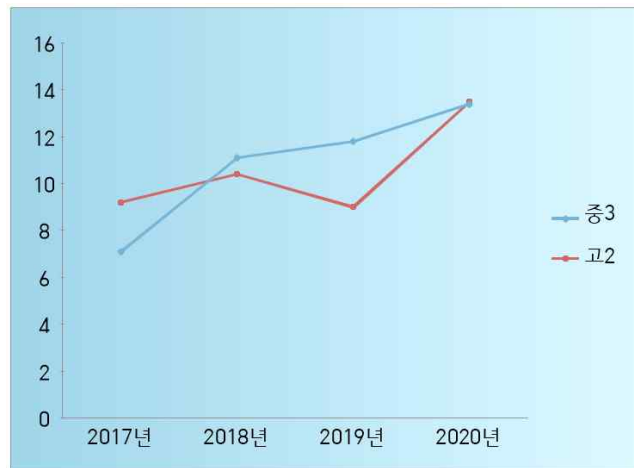
- 교원양성 및 선발의 질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가 증대됨.

□ 제10공약: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1. 현 황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2017년 7.1%에서 2020년 13.4%로 6.5%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2017년 9.22%에서 2020년 13.5%로 4.3%p 증가해 2020년에 최초로 10%를 둘 다 넘어간 심각한 수준임.

[그림]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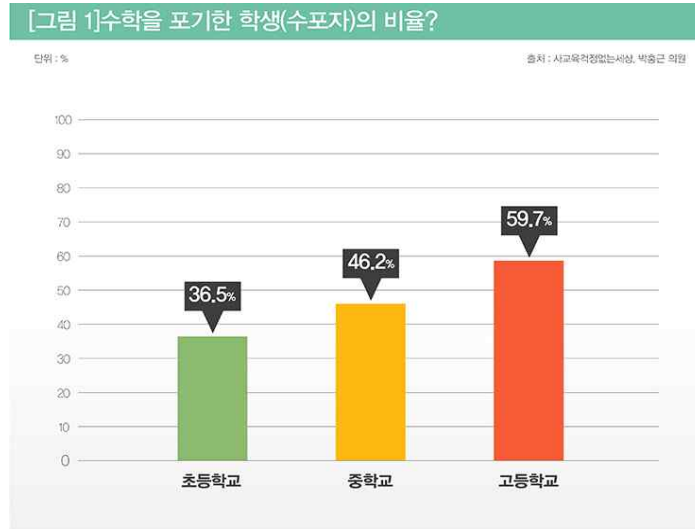
-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고등학교 공히 다른 과목의 2배 정도 또는 그 이상임.

[표] 수학 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연도  | 구분 | 1수준(기초학력 미달)        |                       |                      |                      |                       |                      |
|-----|----|---------------------|-----------------------|----------------------|----------------------|-----------------------|----------------------|
|     |    | 중3                  |                       |                      | 고2                   |                       |                      |
|     |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                   | 수학                    | 영어                   |
| '19 |    | 4.1<br>(0.28)       | 11.8<br>(0.44)        | 3.3<br>(0.24)        | 4.0<br>(0.40)        | 9.0<br>(0.59)         | 3.6<br>(0.35)        |
| '20 |    | <b>6.4</b><br>(0.4) | <b>13.4</b><br>(0.59) | <b>7.1</b><br>(0.43) | <b>6.8</b><br>(0.52) | <b>13.5</b><br>(0.75) | <b>8.6</b><br>(0.64)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에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의 7,719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교 36.5% 중학교 46.2% 고등학교 59.7%로 엄청난 수포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림] 수학을 포기한 학생 비율



## 2. 대안

- 교원을 임용한 각 시도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교급별로 수포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는 대안을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 반영함.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교사에게는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도 예시 평가 문항을 공개함.
- 아울러 임용고시에서도 전공 지식보다 수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재구성함.
-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 개념을 끄집어내어 학생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수학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교과서만 가지고도 교사 중심의 수업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3. 기대효과

- 암기식 주입식 수학교육에서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학생중심의 수학교육 실현함.
- 수학기초학력 미달자, 수포자 양산에서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책임지는 학교 교육을 실현함.
-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풍토 조성함
-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한 문항 출제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 제11공약 : 사교육을 조장하는 오래된 관습을 근절합니다.

- 공교육내에서 사교육 조장(알림장 어플 광고, 사교육업체 입시 설명회, 사교육 권유) 및 3대 비교육적 사교육 근절(선행 광고 근절, 심야교습 금지, 고액 교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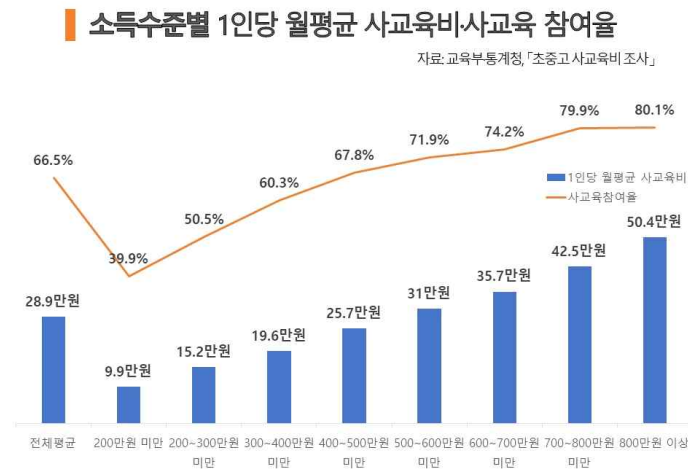
1. 현 황

-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무려 21조원으로, 해당년도 국가 교육예산(60조원)의 1/3에 달하고, 월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배 차이에 달함.

[그림] 사교육비 총규모



[그림]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 현행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만 금지하고 있고, 사교육에서의 선행은 광고만 금지함.
- 학원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별 조례로 학원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있

으나 지역별 영업 시간의 편차가 있어 일부 지역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고, 공휴일과 주말까지 학원에서의 학습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휴식권, 건강권,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음.

- 공교육에서마저 사교육을 조장하는 관습들이 존재하는데 학교책임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습들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알림장 어플의 사교육 광고, 입시 설명회의 사교육 업체 설명, 교사들의 사교육 권유가 이에 해당함. 특히 앞선 두 가지는 사교육업체의 주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으며, 교사의 사교육 권유도 공교육을 신뢰하던 많은 학부모들이 낙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2. 대안

- 교육과정에 앞선 과도한 선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과속이고 반칙이므로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선행교육 조장을 막을 수 있도록 선행교습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함.
- 학교급 또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ex. 유아 ~ 19시, 초등학생 ~20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 전국이 같은 시간으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 제정 필요함. 또한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 학원의 영업을 법으로 금지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노동을 근절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이상으로 초과 징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함.
- 대교협이 공인한 교사들의 입시 설명회 출강, 알림장 어플 사교육광고 금지, 교사 사교육 권유 모니터링 조사 착수 정책을 제안함.

## 3. 기대효과

-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하는 사교육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과 여가, 수면 등을 보장할 수 있음.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 및 학부모의 노후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음.
-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교육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할 수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